



칼빈과 공관복음 문제

Calvin and the Synoptic Problem

신 현 우
(신약신학)

- I. 서론: 잊혀진 칼빈의 신약문헌학
- II. 칼빈과 공관복음문제
- III. 칼빈의 논증을 계승한 학자들
- IV. 어거스틴과 칼빈
- V. 결론: 신약학자 칼빈의 재발견

개혁주의 학술원

I. 서론: 잊혀진 칼빈의 신약문헌학

종교개혁자 칼빈이 공관복음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아는 신약학자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신약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공관복음문제 연구에서 칼빈의 이름이 언급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헨드릭슨(W. Hendriksen)은 1973년에 출판된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칼빈이 공관복음 상호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인 마태우선



설(먼저 쓰여진 마태복음을 마가가 요약하여 마가복음을 저작했다는 설)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¹⁾ 헨드릭슨이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네덜란드에서는 뮈더(H. Mulder)가 공관복음문제에 대한 칼빈의 글을 그의 공관복음문제 연구서에서 인용한 바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공관복음문제에 관한 칼빈의 연구와 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신약문헌학자 칼빈의 모습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II. 칼빈과 공관복음문제

칼빈은 1555년에 제네바에서 라틴어로 출판한 그의 공관복음주석에서 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하였다는 전통적 입장을 부정한다. 1555년에 출판된 이 책은 유럽의 도서관들에 아직 보관되어있는데, 다음은 네덜란드 우트레흐트(Utrecht) 대학 고문서 보관소에서 필자가 확인한 라틴어 원문이다:

... in eiusdem rei narratione interdum prolixior est. Mihi certè magis probabile est, & ex re etiam ipsa coniiicere licet, nunquam librum Matthaei fuisse ab eo inspectum quum ipse suum scriberet: tantum abest ut in compendium ex professo redigere voluerit.³⁾

... 그것[마가]은 동일한 사건의 표현에 있어서 때때로 더 길다. 그[마가] 자신이 자신의 책을 쓸 때 그에 의해 마태의 책이 절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에게서 분명히 더욱 개연성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사실 자

1) *The Gospel of Matthew*, vol.1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p.33.

2) *Het synoptisch vraagstuk* (Delft: Uitgeverij van Keulen, 1952), p.4.

3) J. Calvin, 'Argumentum in Evangelium Iesu Christi secundum Matthaeum, Marcum, & Lucam,' in *Harmonia ex tribus Evangelistis composita, Matthaeo, Marco & Luca: adiuncto seorsum Iohanne, quòd pauca cum aliis communia habeat*, by J. Calvin (Genève: Oliua Roberti Ştephani, 1555).



체로부터 추측될 수도 있다. 그[마가]가 공공연하게 [마태복음]을 요약본으로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은 [실제]로부터 너무도 거리가 멀다. (사역)

칼빈이 지적한 것은 간단하다: 마가복음에는 여기저기 마태복음의 평행구절보다 더 긴 곳이 있는데, 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했다면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했다는 가설은 틀린다.

칼빈이 사용한 논리는 다음처럼 일반화할 수 있다: 관찰된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데 실패하는 가설은 거부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학자들이 사용하는 기본 원리이며, 이것을 터켓(C. M. Tuckett)은 공관복음문제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우리는 어떤 가설을 가정할 수 있다. ... 그 후에, 그 가설이 신뢰할 수 있게 되려면, 나중에 기록한 자가 행하였다고 단정되는 변경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들을 제시해야 한다. ... 그 주어진 이유들이 일관성 있는 전체를 구성하고 사실들에 부합하는 정도는 그 가설의 신빙성의 척도가 될 것이다. 한편, 그 이유들이 일관성 없는 집합을 구성한다면, 이것은 그 아래 놓인 자료설이 틀린다는 약간의 암시가 될 것이다.⁴⁾

III. 칼빈의 논증을 계승한 학자들

칼빈이 이미 16세기 중반에 사용한 논증은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반복되어 나타난다. 레이든 대학에서 칼빈으로부터 그리스바흐에 이르는 공관복음 대조서들을 연구한 드 랑(M. H. de Lang)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드 랑은 콤페(J. B. Koppe)가 1782년에 칼빈이 사용한 논법으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에 의존하고 있다는 가설을 논박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⁵⁾ 드 랑이 박사논문을 쓰던 집은

4) C. M. Tuckett, "The Griesbach Hypothesis in the 19th Century," i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 1979, p.48



176 설교자 칼빈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머물던 유서 깊은 장소에 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근세로 돌아가 라틴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고서에 묻힌 잊혀진 역사를 발굴해 내었던 것이다.

콤포가 독일 괴팅겐에서 1782년에 펴낸 책의 주장은 제목에서부터 분명하다: *Marcus non epitomator Matthaei*, 즉 “마가는 마태의 요약자가 아니다.” 다음은 그의 글의 인용이다. 이탤릭은 콤포의 것을 그대로 실었다.

*Deinde vero, quod Epitomatoris consilio plane contrarium esse quisque videt, in plerisque fere narrationibus, quas uterque Matthaeus et Marcus referunt, oratione multo uberiori et copiosiore Marcus utitur ipso quidem Matthaeo.*⁶⁾

그리고 참으로, 다음은 요약론[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했다는 가설]에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다.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둘 다 전달하는 대부분의 보도들에서, 대개 마가복음은 최소한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고 충만하게 말한다. (사역)

콤포의 글은 레이든 대학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드 랑은 그녀의 박사 논문에서 콤포의 글을 인용하면서 *uberiori*를 *uberiore*로 교정하였다.⁷⁾ 콤포가 실수한 것을 드 랑이 바로 잡은 것이다.

5) H. M. de Lang, *De opkomst van de historische en literaire kritiek in de synoptische beschouwing van de evangeliën van Calvijn (1555) tot Griesbach (1774)*, (Ph.D.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1993), p.275.

6) J. B. Koppe, *Marcus non epitomator Matthaei, in Sylloge commentationum theologiarum*, vol.1, edited by D.J. Pott & G.A. Ruperti (Helmstadii: Typis C.G. Fleckeisen, 1800), [reprint of *Marcus non epitomator Matthaei*, Göttingen, 1782] p.54.

7) *Kritiek*, 275. 각주19번.

그러나, 드 랑이 레이든 대학에서 이것을 발견하기 6년 전에, 미국에서 피바디(D. B. Peabody)가 이미 콤페의 연구 성과를 언급한 바 있다.⁸⁾ 해 아래 새 것은 참으로 드문 법이다. 모두들 콤페의 연구를 발견하고 놀랐겠지만, 그도 칼빈 이후의 첫 번째 주자가 아닌 것이다. 콤페 이전에 이미 여러 학자들이 동일한 논증으로 마태우선설을 논박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학자는 네덜란드의 우트레흐트(Utrecht) 대학에서 나왔다. 그가 바로 판 윌레스(B. van Willes)인데, 그는 1811년에 라틴어로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에서 콤페 이전에 밀(J. Mill), 스판헤미우스(F. Spanhemius), 산드하겐(C. H. Sandhagen), 롤리우스(R. H. Rollius) 등이 이미 18세기에 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했다는 설을 논박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콤페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논증을 사용했다는 것도 지적했다.⁹⁾ 이러한 관찰에 덧붙여 판 윌레스는 그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추가하였다.¹⁰⁾ 이러한 판 윌레스의 연구는 피바디에 의해 언급되었다.¹¹⁾

20세기에 와서 칼빈의 논증을 사용하여 마태우선설을 논박한 학자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약학자 스타인(R. H. Stein)이다. 그의 논증을 칼빈의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언급해 본다.

만일 마가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요약된 기사를 쓰려고 했다면, 어찌하여 그는 요약된 기사를 더 길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

8)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Linguistic Argument for Solving the Synoptic Problem: The Nineteenth Century in Context,' in *Jesus, the Gospels, and the Church*, edited by E.P. Sanders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87), p.51.

9) *Specimen hermeneuticum de iis, quae ab uno Marco sunt narrata, aut copiosus et explicatius ab eo, quam a caeteris evangelistis, exposita* [Ph.D. dissertation., Utrecht University] (Traiecti ad Rhenum, 1811), pp.187-88.

10) Van Willes, *Specimen hermeneuticum*, 특히 185-92.

11) 'Chapters,' 51.



178 설교자 칼빈

들은 서로 상반된 경향들이다.¹²⁾

스타인은 그의 공관복음문제 입문서(*The Synoptic Problem: An Introduction*)에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긴 증거의 리스트를 제시한다.¹³⁾ 이러한 증거는 린네만(E. Linnemann)의 공관복음 문제 연구서(*Is There a Synoptic Problem?*)에서도 제시된다. 그녀는 이러한 증거를 오늘날까지도 굳세게 버티고 있는 마태우선설의 일종인 그리스바흐 가설(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토대하여 저작된 것이라는 가설)을 논박하기 위하여 제시한다.

추가적인 미세한 세부사항들은 두자료설에 대해서 보다 더 큰 문제들을 그리스바흐 가설에 제공한다: 그리스바흐 가설에 토대하면, 마가는 그의 자료들 모두에 258개나 되는 추가적인 미세한 세부사항들을 덧붙였고, 그의 자료에 없는 2013개의 단어를 보유하며, 또한 마태복음에 없는 902개의 단어와 누가복음에 없는 1330개의 단어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는데, 이것은 4245개의 단어, 또는 마가복음의 37.8 퍼센트를 형성한다.¹⁴⁾

마태우선설을 반대하기 위한 스타일러(G. M. Styler)의 논증도 동일하다: “만일 마가가 마태복음을 사용하였다면, 그는 그의 주요 자료의 50% 정도만을 사용하면서도 세부적인 서술에서는 그의 자료를 확장시킨 것이다.”¹⁵⁾

12) R. H. Stein, 'Synoptic Problem,' i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ited by J. B. Green, S. McKnight and I. Howard Marshall (Leicester: IVP, 1992), p.788.

13) R. H. Stein, *The Synoptic Problem: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1987), p.50.

14) E. Linnemann, *Is There a Synoptic Problem?*, translated by R. W. Yarbrough (Grand Rapids: Baker, 1992), p.151.

15) 'The Priority of Mark,' in *The Birth of the New Testament*, by C. F. D. Moule,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Companion, vol.1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2), p.231.

IV. 어거스틴과 칼빈

칼빈이 문헌학적 논증을 통해 거부한 전통적 입장은 바로 교부 어거스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칼빈이 공관복음문제 연구에서 어거스틴을 반대한 셈이다. 어거스틴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마태우선설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Marcus eum subsecutus tamquam pedisequus et breviator eius videtur.¹⁶⁾

마가는 마치 그[마태]의 하인이자 요약자인 양 그[마태]를 가까이 따라간 것처럼 보인다. (사역)

어거스틴의 진술은 전통적으로 마가가 마태복음을 요약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칼빈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 입장을 그의 관찰에 토대하여 반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과연 틀렸는가?

어거스틴의 진술은 자세히 살펴보면 문맥상 단지 양적인 비교에 입각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유사성을 묘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어거스틴은 실제로 마태우선설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한 학자가 바로 드 랑이다. 그녀는 콤페가 이미 1782년에 어거스틴의 진술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간의 문헌적 의존관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¹⁷⁾

16) *De consensu evangelistarum libri quattuor*, I.2. For the text, see F. Weinrich (ed.),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43 (Vindobonae: Verlage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04), p.4.

17) De Lang, *Kritiek*, 274; see Koppe, *Marcus*, 44.

이러한 가능성을 문헌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논증한 학자는 레이든 대학에서 드 랑의 박사논문을 지도한 드 용어(H. J. de Jonge) 교수이다. 그는 라틴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직접 어거스틴의 작품을 연구하여 콤포의 주장을 지원하였다. 그에 의하면, 문맥상 *subsequi*(따르다) 동사는 “문학비평적 또는 편집비평적 의미에서의 ‘편집’이란 개념보다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저술과) 공통적인 것을 매우 많이 가진다’는 개념”을 전달한다.¹⁸⁾ 이러한 해석을 따르면, 어거스틴의 진술은 “마가는 마치 그[마태]의 하인이자 요약자인 양 그[마태]와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번역된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될 경우, 칼빈과 어거스틴 간의 갈등은 없어지게 된다. 칼빈이 반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의 가설이 아니라, 어거스틴을 오해한 전통적인 견해인 것이다.

V. 결론: 신약학자 칼빈의 재발견

현대 신약학 연구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인 공관복음문제는 이미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이다. 또한 칼빈으로부터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된다. 21세기를 맞이하며 공관복음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지만, 칼빈 이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마태우선설은 공관복음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님이 꾸준히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 학자들에게 칼빈은 주로 신학자로 이해되고 있지만, 공관복음문제 연구에서 우리가 만나는 칼빈은 고전문헌학적 훈련을 받은 후 성경주석에 뛰어난 예리한 신약문헌학자 칼빈이며 공관복음문제 연구의 선구자 칼빈인 것이다.

18) ‘Augustine on the Interrelations of the Gospels,’ in *The Four Gospels 1992*, edited by F. Segbroeck *et al.*, vol.3 (Leuven: Peeters, 1992), p.2415.